

특별취재



익산소방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지난 23일 오후3시경 익산시 동우화인켄(주)신흥공장에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익산시, 익산119화력구조팀, 익산경찰서, 제106부대 3대대, 35사단 화생방 지원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12개 유관기관 149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시설 공습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실제훈련이 진행됐으며, 훈련은 동우화인켄(주)신흥공장에서 불순분자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테러 발생으로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익산소방서는 소방펌프차 등 차량 6대, 소방인원 41명이 동원되어 테러현장 안전통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을 실천차별 제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대야큰돌 올해 첫 벼 수확

군산시 최대 들녘인 대야큰돌에서 24일 올해 첫 벼를 수확했다.

올해 군산지역의 첫 벼 베기는 대야큰 정수영 농가가 대야큰 지경리 일원 0.8ha의 논에 재배한 고품질 조생종 품종인 '조광벼'이다.

정수영 농가는 지난 5월 첫 모내기를 한 후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벼 관리에 정성과 노력을 쏟은 결과, 군산지역에서 첫 벼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특히 올해는 비가 적음에도 높은 기온에 일조량이 많아 벼 생육 최적 조건이 형성돼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 한 해 동안 훌륭한 농부의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어청도등대 기념우표 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종민)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에 위치한 어청도등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등대에 선정돼 20일 기념우표로 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우표로 2008년 등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 등대인 팔미도 등대를 주제로 우표가 발행된 경우는 있으나 아름다운 등대를 선정해 우표로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념우표는 해양수산 통합 20주년과 해양레크리에이션 원년을 기념하여 발행하는 기념우표로 전북지역에 위치한 어청도등대를 비롯해 정읍 동성소매물도등대, 부안 오륙도등대, 울산 울기등대 등이 포함됐다.

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해양문화유산 육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 모현동 희망동행 지역사회협업 조성전기·신일설비와 업무협약

익산시 모현동 희망동행 지역사회협업의 전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의 전기와 보일러수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전기, 신일설비와 재능기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24일 오전 모현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안병진 모현동지역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성도 모현동장과 소순성 조성전기 대표, 신일순 신일설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아웃 밝은 빛 찾아주기' 재능기부 협약(MOU)을 체결하고 모현동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두 업체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전등 보일러, 수도설비 고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해 전선과전 등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을 통해 주거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주게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서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사업추진 '어렵다'

시장 상인회 "주차장문제 해결·먹거리·불거리·힐링 공간 조성 필요"

익산 서동시장(회장 서길봉)이 "2016년도 초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 및 유동인구 증대와 인구유입증대 등 기대감에 한층 부풀어 있었으나 4-5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이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유통의 특성과 특산물을 활용해 외지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관광적인 측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선 서길봉 서동시장 상인회장은 "문화적측면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서동시장의 경우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주차장 인구조성을 통한 관광버스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주변토지 매입과 주차면수 2배(100대이상)확대 등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문화공연장, 먹거리장터(야시장) 및 인사동 거리의 상가 등을 전주시 남부시장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지난 지자체장은 '부채해결이 우선'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해 공모사업인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혜택을 하지도 받을 수 없었던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회장은 "서동시장의 경우 1차 식품을 취급 부쪽과 주차장 진입로 협소로 소규모객의 주차불편을 가져 오므로써 전통시장 방문을 외면 당하고 있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서동중앙매일 시장을 익산의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하였지만, "어느 한 곳도 관광버스 소핑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 회장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음식점 및 판매점 등의 관광회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먹거리, 불거리,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조성될 때 관광객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서 회장은 "중소기업청에서 모태학교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기용해 총책임자로 해서 사업단 구성과 3년내 최고 18억원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업을 3단계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기반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도 익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고 "선정 당시에도 적극성을 보인 지역구 국회의원들 마저도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익산시가 서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서동주차장 인구조성에 있는 개인주차장 일부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협의 해주든지 아니면 매입협약이 전혀 안될 시 도시도로계획사업추진을 통한

토지매입 공탁을 걸고 강제매입해 주차 길 비라"며 "이런 사항이 실행될 때 외부 관라차 및 외부 관광객 자가용 등의 주차 가능을 통한 유동인구 증대가 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계 문화유산과 연계된 홍보 인프라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각 시장에는 상인회가 구성되면서 시장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장메니저가 배치되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나 문화관광형시장을 선정된 후 시장메니저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단독적으로 관광시장에 선정되는 경우, 사업단 일원이 시장메니저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익산과 같이 3개 시장이 공동으로 연합해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단의 직접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각 시장에 시장메니저를 종전과 같이 1명씩 지원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전통시장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불만의 쓴 소리를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모든 공무원들은 법대로 규정대로가 우선이지만, 모든 민원 처리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길 절실히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가시적 성과

자치법규 정비·자체 성과 평가기준 마련 등으로 향후 추진 동력 확보

군산시가 주민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중 전국규제지도 평가와 규제개혁 종합평가에 대비한 지수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 및 자체 성과 평가기준 마련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안 마련 등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향후 규제 활성화를 도모할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업무 등 폭넓은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21개 부서의 합동보고회를 개최해 전 직원이 상당부분 규제개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규제개혁 관련 상반기 주요 실적은 생활불편규제 발굴을 위한 읍면동 현장행정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 공포, 민원후견인 제도 추진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 임대주택을 적용받는 공공주택에 가점어린어린 설치·운영 허용근거 마련,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집포 임대용자 한도액 상향조정, 은파관광지내 푸드트러 관련 운영 지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허용을 통한 점용자 비용부담 완화, 옥외광고물 검인(승인) 절차 개선 시행, 전복지역 권역별 특별규제 발굴 등의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적극적인 인·허가행태개선 차원에서 '군산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적용의 완화 운영기준 고시'를 전국에서 최초로 공포하고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축·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발표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시로 발굴·접수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군산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마인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 보석박물관-국립전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소장품 공동기획전시 연구·개발·학술교육 등

익산시 보석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이 소장품 공동기획전시, 연구·개발, 학술교육 사업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오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을 비롯해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보석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국립전주박물관과의 업무협약은 작년부터 물밑 접촉을 통해 이룬 것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앞으로 기획 전시를 비롯해 학술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석박물관 대외적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협약 후 첫 전시로 9월6일~10월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보석박물관 소장품 공동전시회가 열린다.



'세계명작 속 신비한 이야기'를 주제로 보석의 탄생부터 장신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보석과 동화를 재미있게 연결해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 흥부농부, 금나라 뚝딱!, 한렐과 그레텔, 뽀로로' 등을 표현한 화려한 보석기공품 300여점을 전시한다.

한편,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은 "이번 국립전주박물관과 협력이 세계유산 백제유적지 '보석의 도시, 익산'을 알리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활발한 공동기획전시와 학술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차별화된 참여 교육 '호응'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단순 지식전달 수준인 성교육과 차별화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교구를 활용해 체험과 참여중심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7월까지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3회, 1만430여명을 교육했으며, 이들 중 260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0점 기준 평균 92점으로 체험형 성교육 효과 및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센터 조사자들은 성교육의 내실화와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전문강사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 전문가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사회·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군산기계고 도서동아리와 함께한 청소년(성)토크 콘서트 '북면성(性)왕'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과 건강한 성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O·X퀴즈 성(性)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건강 및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교육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부모·가족 단위 교육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형 성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교육이건이 열악한 고교생 및 농어촌지역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이밖에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관련 문의 또는 예약은 군산시 가족청소년과(454-3242) 또는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463-1230)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금강농어촌공, 단위농업개발 가뭄극복 효과

연이은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대부분의 저수지 저수율이 50%이하로 떨어지고 충남과 전남 일부지역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단장 박종만)에서 추진 중인 단위농업개발사업의 효과와 중요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금강사업단은 금강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풍부한 용수를 이용 군산·익산·김제·서천광역 농업용수를 서천 등 4만8000ha의 농경지와 군산산단단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극심한 가뭄에도 호남평야 농업민들의 시름을 덜고 있다는 평가이다.

금강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금강호에 조성된 수자원을 활용해 금강하류연안 2도3시3군 52개 읍·면의 농경지를 가뭄과 홍수극복 없는 농경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기상이변으로 봄·여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금강호 주변지역 가뭄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사업단은 저수율은 가뭄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야간 총력급수체계를 가동하여 연간 10억여톤의 용수공급능력을 갖춘 금강호의 용수를 나포양수장(약20m³/s)과 서포양수장(약27 m³/s), 그리고 100여km의 용수로를 이용하여 군산·익산·김제·서천광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금강사업단은 금강권 유역의 용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용수공급 및 관리를 위해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물정보관리를 위한 '지능형 물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스마트한 물 관리를 실현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내달 20일 부터 단편영화제작 아카데미

전북도가 주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상 제작 교육사업인 '2016 주민네마스쿨'이 9월 익산에서 바톤을 이어받는다.

익산시 문화관광과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2016 익산시 주민네마스쿨 '단편영화제작아카데미'는 오는 9월20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은 참여자들이 팀을 이뤄 한 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시나리오에서부터 촬영, 편집 등 전체 영화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초를 탄탄히 배우게 된다.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는 교육 특성상 촬영, 배우, 시나리오, 연출, 후반작업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영화의 소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익산이다. 익산의 역사, 공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익산에 살면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 익산에서 살고 싶다고 꿈꾸는 모습 등 '익산'을 무대로 '익산'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게 된다.

교육생들의 첫 단편영화는 재미극장에서 상영회를 갖는다. 극장 상영을 통해 함께 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 볼 수 있으며, 지역 방송에 역세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또 영화제작자들을 결성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5차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지문회의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지난 23일 새마을회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활동의견수렴 및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배 협의회장은 정기회 주제인 '내북제재 현황과 통일공간대 확산'에 대해 지문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대비하여 평소 통일준비운동에 주민들과 함께 통일공간대 확산을 도모하고자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드배치와 대북제재이후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국

민의 단합과 국론결집으로 통일공간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통일외교사색에 자문위원들이 소속단체에서 국민대화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국회의 여론을 수렴해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 지역의 통일외교를 수렴하고 통일공간대 형성과 의지를 확산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